

# 1930년대 후반 ‘후일담 소설’의 서사적 시간 재구성 양상 고찰

오 창 은\*

## 요약

본 논문은 최재서가 1930년 후반에 카프 출신 문인들의 소설을 ‘후일담 문학’으로 규정한 문헌에 주목하였다. 그 글은 최재서의 『현대소설과 주제』(〈문장〉 제1권 제6호, 1939.7)이다. 최재서는 ‘후일담 문학’이 에피소드를 다룸으로써 중심 주제에서 벗어난 소설이라고 했다. 최재서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위해 논자는 ‘후일담문학’을 서사적 시간과 연결해 접근했다.

‘후일담’이라는 명명에는 사건의 사후적 재구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후일담 문학’에 대한 최재서의 논의는 현대소설의 특징인 ‘비연대기적’ 혹은 ‘단절적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재서의 ‘후일담 문학’이라는 명명은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이 소설 서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겨났다. 반면, 1930년대 후반 카프 1930년대 후반 카프 출신 문인들의 소설이 서사의 시간적 재구성을 통해 시대를 건너는 ‘사상의 진지전’을 선택했다고 보았다. 논자의 분석 대상 텍스트들은 김남천의 『춤추는 남편』(1937), 이기영의 『수석』(1939), 한설야의 『이념』(1939)이다. 세 편의 소설에는 서사의 시간 재배치를 통한 작가들의 사상적 연속성이 담겨져 있다. 김남천은 고발문학론을 통해 서사의 시간적 단절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 이기영은 검열의 우회라는 방식을 통해 사상의 내적 연결성을 확보하려 했다. 한설야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외적 서사와 내적 서사를 구분함으로써, 사상의 내적 지속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남천·이기영·한설야는 소설 서사의 시간적 재구성을 통해 1930년대 후반에 ‘사상의 진지전’을 펼치고 있었다.

최재서의 『현대소설과 주제』를 비판한 논의라고 보았다. 최재서가 ‘후일담 문학’

\*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을 ‘주제’와 관련지어 접근했다면, 임화는 ‘전향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소설과 인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임화는 화려했던 과거를 가진 인물이 현재에는 고뇌하고 있는 양상에 관심을 표명했다. 임화는 최재서의 ‘주제’와 대비되는 ‘주인공의 성격화’를 비평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가의 ‘내적 고뇌’에 주목했다.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과 카프 해산, 그리고 검열로 인한 문학 지형의 변화 속에서 카프 출신 작가들은 허용된 자유를 활용하는 소설쓰기를 선택했다. 김남천과 이기영, 한설야의 1930년대 후반 소설은 최재서가 명명한 ‘후일담 문학’이라기보다는, 시대와 대결하는 ‘내부 망명’, ‘사상의 진지전 문학’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주제어: 후일담 문학, 최재서, 『현대소설과 주제』, 임화, 『최근 소설의 주인공』, 전향문학, 전향소설, 1930년대 후반 문학, 전형기, 중일전쟁, 카프 해산, 검열,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춤추는 남편』, 『수석』, 『이녕』

목차

1. 1930년대 후반, 우울의 시대
2. 사생활의 세계와 근대적 윤리의 곤란
3. 우회적 글쓰기와 내부망명으로서의 진지전
4. 사적 세계와 내적 일관성의 대결
5. ‘후일담 문학’과 소설의 시간성

## 1. 1930년대 후반, 우울의 시대

〈동아일보〉는 1938년 1월 1일자 신년호에 실릴 『명일의 조선문학 - 장래할 사조와 경향 : 문단 중진 14씨에게 재검토된 리얼리즘과 휴머니즘』을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sup>1)</sup> 이 좌담회를 위해 1937년 12월 15일 오후 5시, 〈동아일보〉 응접실에 김남천, 김문집, 임화, 최재서 등 14명의 문인들이 모였다. 동아일보사의 서향석 기자는 작가와 평론가가 서로 대립만

1) 서향석 외, 『명일의 조선문학 - 장래할 사조와 경향 : 문단 중진 14씨에게 재검토된 리얼리즘과 휴머니즘』, 〈동아일보〉 1938년 1월 1일자·3일자, 동아일보사.

하는 듯한데,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과제'를 얻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지는데 좌담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학적 입장이 상이한 평론가, 시인, 소설가, 극작가 14인<sup>2)</sup>이 모였기에, 때로는 대화에 날이 섰고, 서로를 추궁하는 말들도 오갔다.

좌담회 전개양상을 보면,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대립이 부각되는 듯이 보인다. 모운숙은 “도시 평가들은 작가를 무시합니다”라고 성토했고, 김문집은 “아무런 감수성도 없이 그저 개념화한 인상만으로 비평을 하는게 평론가”라고 몰아붙인다. 에피소드들도 그대로 그려져 있다. 기자가 김광섭에게는 “왜 잠잠코 과자만 잡수십니까”라고 말을 재촉하기도 하고, 김상용에게는 “왜 한 말씀도 안하십니까”라고 하자 김상용은 “그저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기자의 말을 받아 넘기기도 한다. 좌담 중 임화와 최재서가 논쟁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최재서 : (전략) 즉 작가가 리얼리즘에 분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는지?

임화 : 유치진 씨 말대로 리얼리즘의 길은 어두운데 그러니까 작품도 자연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로맨티즘이 일류의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우리네 작가가 우리의 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의문입니다. 우울한 현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데올로기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외국을 본다면 19세기 말의 호걸(豪傑)한 속에서도 신시대가 제시되지 않았던가요. 체홉이나 알티바세프에서 어떻게 고리끼가 나왔는가. 이것이 모두 작가가 현실을 떠나서 -

김문집 : 무슨 소리! 작가가 현실을 안 본다?

임화 : 아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좀더 광범한 현실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2) 좌담 참석자는 '평론가 박영희, 극작가 유치진, 시인 김상용, 평론가 김광섭, 시인 모운숙, 시인 정지용, 평론가 김문집, 시인 임화, 평론가 최재서, 소설가 김남천, 시인 김용제, 평론가 정인섭, 평론가 이현구, 본사측 서향석이다.

김문집 : 무슨 소리.

최재서 : 리얼리즘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sup>3)</sup>

좌담의 논의는 리얼리즘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화와 김남천은 리얼리즘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유치진은 비판적 입장에 서 있다. 최재서는 더 적극적인데, 인용문처럼 “리얼리즘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서의 지향은 기존의 문학적 경향과의 단절을 통한 “불안과 초조를 특징으로 삼는 현대정신”<sup>4)</sup>을 구현하는데 가 닿아 있다.

좌담에 참석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객관적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조선 문학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현구는 조선 문학이 “좀더 암담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다고 했고, “현실적으로 나지 못하고 상징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한다. 다른 참석자들도 ‘말하기 곤란함’에 대하여, 객관적 정세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광섭은 “사회 정세가 급전적(急轉的)으로 변화”고 있다고 했고, 모운숙은 “오늘의 객관적 정세가 그것을 허용치 않으니까 거대한 문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1937년의 시점에서 문학인들은 압도하는 현실에 위축되는 양상이었다. 유치진은 “작가가 리얼리즘만 추구하고 보면 너무 어두워져서 비판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신변 소설화”한다는 지적을 했다. 의외로 임화도 유치진의 지적에 호응해 “우울한 분위기에 휩쓸려 이데올로기를 상실한 것”이라고 수긍한다. 김남천은 보다 직접적으로 “내년까지는 고통의 시기”라고 말했다. 이 좌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언어가 ‘우울’이고, 좌담도 전체적으로 우울의 정조가 지배적이다. 김문집은 “우울 속에서 우리의 우울상”을 그리자고 했다.

1937년과 1938년은 도대체 어떤 시기이기에 조선의 문인들이 ‘명일(明

3) 서항석 외, 앞의 글, 新年號 其 五, 1면

4) 최재서, 『비평과 과학』,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9면.

日)의 문학이 비관적이고 우울한 풍경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시기 작가들의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 조선문학의 곤란, 우울의 정서는 몇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첫째, 1937년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조선이 전시동원체제로 이행하던 시기였다. 좌담이 있던 1937년 12월 15일은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일본은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근교에서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일으켰고, 8월 13일에 상하이(上海)로 전쟁이 확대되어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었다. 12월 13일에는 일본군의 난징(南京) 점령하면서 '난징 대학살'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권력은 전쟁 상황에서 조선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통제했다. '적과 아'라는 명료한 이분법적 논리로 인해 작가적 상상력은 급격히 제한 당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가들은 비관적 정서 속으로 침잠했다.

둘째, 일본은 중일전쟁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sup>5)</sup> 1936년 12월 12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법령 제16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대도시에 사상범보호관찰소가 세워졌고 일본인이 중심이 된 보호사들이 조선인 사상범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했다. '치안유지범 위반자'로 감시 대상이 된 조선의 지식인 작가들은 우울감에 젖어들었다.

셋째, 1934년 5월 7일 제2차 카프 사건으로 인해 1935년 5월 21일 카프 해산이 이뤄졌다. 리얼리즘 문학을 지향하던 카프문인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1934년 6월 21일에 체포 구금을 당했다. 1935년 12월 9일에는 박영희·윤기정·이기영·송영·이상춘·전평이 기소되었고, 한설야를 포함

5) 김홍식은 사상통제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보태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2.12./3.10)을 발동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정련:1939.7.1.)을 국민총력조선연맹(총련:1940.10.16.)으로 개편했으며, 또 조선인 징용과 징병의 기반구축을 노리는 국어(고구고) 사용화(1937.3부터)에서 국어전용으로의 전환을 강행했다. 정련과 총련의 연계단체가 조선문인협회와 조선문인보국회였고, 국어전용이 『동아일보』·『조선일보』의 폐간(1940.8.10.)과 『문장』·『인문평론』의 폐간(1941.1) 등을 가져왔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김홍식, 『작가 이기영, 그 치열한 삶과 문학적 진실의 수준』, 예맥, 2020, 363면.)

한 12인만 석방되었다.<sup>6)</sup> 대부분은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보호관찰대상으로서 감시당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넷째, 조선문학 내부의 문학적 경향도 카프 해산 이후 급격히 변했다. 1933년 8월 15일 창립한 구인회는 세대 감수성 변화에 입각해 구세대 작가들을 비판하며 1930년대 중후반 문학을 주도했다.<sup>7)</sup> 좌담에도 구인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유치진·정지용이 참가했다. 특히 정지용은 ‘현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문학을 놓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조선적인 음, 색, 희, 애, 락”을 살피자고 했다. 카프 출신 문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문학적 흐름의 변화였다.

1937년과 1938년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사상통제의 강화, 카프해산 이후 창작의 자유 억압, 그리고 조선문학의 지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울의 정조가 지배적이었다. 한국문학사에서 이 시기를 “프로문학의 퇴조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말기까지”를 “전형기”로 규정한다.<sup>8)</sup> 1937년부터는 ‘암흑기’나 ‘일제말기’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향소설’과 ‘후일담문학’은 1930년대 후반을 특징짓는 용어다. 최재서는 한국문학에서 ‘후일담 문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현대소설과 주제』<sup>9)</sup>에서 “메인·스토오리가 끝나고 케라스트로오프도 지나간

6) 『박완식은 공소, 칠인은 검사공소, 신건설사건판결후보, 12인은 조야출감』, 〈조선일보〉 1935년 12월 17일, 조선일보사, 2면.

7) “구인회가 조직된 것은 1933년 8월 15일이다. 창립 당시 회원은 고보 동창 또는 평소의 친분 관계로 모인 이태준(『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정지용(휘문고보 교사)·이종명(전 기자)·이효석(경성농업학교 교사)·유치진(극작가)·이무영(『문화타임스』 및 『조선문학』 초기 발행인, 동아일보사 객원)·김유영(영화감독)·조용만(『매일신보』 학예부장)·김기림(『조선일보』 기자) 등 9명이었고 박태원·박광양·이상 등은 뒤에 회원이 된다.”(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역락, 2017, 51면.)

8)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203면.

9) 최재서, 『현대소설과 주제』, 〈문장〉 제1권 제6호, 문장사, 1939.7. (최재서가 ‘후일담문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정작 어떤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는가는 명확하지 않았다. 중앙대 국어국문학과와 이경수 교수가 최재서의 ‘후일담문학’에 대한 논의가 『현대소설과 주제』라는 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글은 〈문장〉 제1권 제6호에

뒤에 그 餘勢를 빌어 그 에피소오드라든가 사브·스토오리를 덧붙이기로 써놓은 이야기"라고 했다. 동시대 소설에서는 메인 스토리가 '사회운동'이지만, 사회정세의 변화로 인해 "시대의 드라마는 말하지 못할 記憶으로 化하고 次次 좋은 意味에 있어서나 나쁜 意味에 있어서나 神話化하러"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재서는 '후일담 문학'을 제시하며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엄홍섭의 소설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최재서는 이들 작가들이 "과거에 있어 리아리즘의 계통을 밝아온 작가들이고 따라서 주제성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있어선 누구보다도 한번 두드러볼만한 작가"이기 때문이라고 논의의 이유를 밝혔다.<sup>10)</sup> 최재서는 이기영의 「수석」과 「설」, 한설야의 「이녕」,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춤추는 남편」·「요지경」·「제퇴선」, 엄홍섭의 「아버지의 소식」을 거론했다.

이 논문은 최재서가 1930년 후반에 카프 출신 문인들의 소설을 '후일담 문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후일담'은 서사적 측면에서 시간의 사후적 재구성과 연관이 있다. 폴 리콰르는 『시간과 이야기 I』에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활동과 인간 경험의 시간적 특성 사이에는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문화적인 필연적 형식을 드러내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시행했다.<sup>11)</sup> 폴 리콰르는 '미메시스 II'에서 허구적인 것, 상상적인 것과 관련해 '매개 기능'을 이야기했다. 폴 리콰르를 원용하면, '소설과 시간'의 관계에서 줄거리는 "이질적인 것들의 종합"<sup>12)</sup>이다. 줄거리를 구성하는 시간적 차원은 연대적인 것과 비연대기적인 것이 있다. 상상적 구성물, 허구로서의 소설은 "전통적인 패러다임들과 연결"되어 있다.<sup>13)</sup> 이 전통적

실렸다는 알려주었다. 이 논문의 중요 텍스트인 최재서의 글을 이경수 교수의 도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경수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10) 위의 책, 153면.

11) 폴 리콰르,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I』, 문학과지성사, 2008, 125면.

12) 위의 책, 150면.

13) 위의 책, 157면.

패러다임과 연결하여 연대기적인 것과 비연대기적인 것으로 소설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최재서의 ‘후일담문학’은 현대소설의 특징을 ‘비연대기적’ 혹은 ‘단절적 서사로 본 것이다. 최재서는 “리얼리스트들이 쇼오사리스트의 後日譚을 取扱한다는 外面的 事實보다는 차라리 그 作品 内容에 드러난 어떤 본질적 결합”에 주목한다고 했다.<sup>14)</sup> 최재서는 ‘후일담 문학’을 주제적 결합이 있는 소설로 보았다. 최재서의 규정이 소설의 시간을 사후적인 것으로 분절화해 주제를 주변화한 것이라면, 논자는 1930년대 후반 소설이 처해 있던 맥락적 곤란함에 주목했다. 논자는 소설의 시간 재구성을 사상의 단절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작가들의 ‘일제 강점기 사상의 진지전’을 의미화하려 한다. 이는 근대소설이 시간과 관계 맺는 경험적 방식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로도 볼 수 있다. 논자는 ‘시간의 지속과 ‘시간의 불연속’을 작가의 내면세계와 연결시켰다. 이는 소설 서사의 시간적 흐름을 중시하기 보다는 작가의 사상적 ‘연속과 불연속’에 더 주목한 것이다. 소설 텍스트 속에서 발현된 사상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논의를 통해 카프 출신 작가들의 1930년대 후반 ‘사상의 진지전’이 지닌 의미를 밝힐 것이다. 카프 출신 작가인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식을 실체화하려 한다.

## 2. 사생활의 세계와 근대적 윤리의 곤란

최재서는 ‘후일담’이 “알박이는 다 거두어들인 담에 하는 두벌 추수”, 즉 낙수(落穗) 줍기라고 했다. 이삭줍기에서 “위대한 재료나 광대한 정열을 구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비판 대상 작가들을 분명히 한다. 리얼리스트 작가가 ‘쇼오사리스트의 후일담을 취급하는 것

14) 최재서, 앞의 책, 153-154면.

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재서는 이 글에서 '전향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최재서는 이기영의 소설은 '전향후'를 그린 문학으로, 한설야의 소설은 '전향물'로 표현했다. 최재서는 한국문학사에서 '전향'이라는 표현도 '후일담문학'과 함께 이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최재서는 '후일담'과 '전향물'이 '가족과 생활'의 문제를 다루거나 출옥한 사회운동가의 일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했다. 최재서가 "사회운동가의 후일담을 제일 많이 이용한 작가"로 꼽는 인물이 김남천이다.

김남천의 『춤추는 남편』<sup>15)</sup>은 김홍태라는 인물을 그린 소설이다. 김남천은 1937년 6월에 발표한 『고발의 정신과 작가』<sup>16)</sup>에서 자신의 새로운 창작 방법론으로 '고발정신'을 제시했다. 『춤추는 남편』은 1937년 10월에 발표했다. 이 작품은 김남천의 '고발문학론'을 창작으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춤추는 남편』의 김홍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아내 영실의 친정아버지 소개로 '무역회사에 다니는 생활인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살림같은 것"을 차려서 일상인으로서 고급술인 '뿌란디'(브랜드)를 마실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 홍태가 과거 '감옥을 갔을 때'의 이야기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출옥한 이후 책임져야 할 일들에 속수무책인 홍태의 행태를 그리는 것이 소설의 중심 이야기이다.

홍태는 영실과 동경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미 시골에 결혼한 본처가 있었다. 홍태는 열네살에 세 살을 더 먹은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두었다. 그런 그가 "동대문밖에서 큰집을 쓰고 사는" 집안의 딸인 영실을 동경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딸 헤라를 낳아 가정을 꾸렸다. 영실은 홍태에게 시골에 있는 본처와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하지 않았는데, 취직을 한 후 일년쯤 전부터 "정면으로 이혼하는 요구"를 해 왔

15) 김남천, 『춤추는 남편』, (여성) 제2권 제10호,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7.10.

16) 김남천, 『고발의 정신과 작가-신창작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⑤』, (조선일보) 1937년 6월 5일자, 5면.

다. 흥태는 마침내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조선인 변호사보다는 일본인 변호사 ‘오까무라’를 찾아가려 한다. 그는 이혼 소송에서 꼭 승소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자 다소 마음의 정리가 되는 듯 했다.

흥태의 행복한 구상은 시골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의 편지로 인해 산산 조각이 나고 만다. 그의 아들은 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흥태의 과거 ‘투옥’ 경력 때문에 공립학교 지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립××고등보통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데, “가정 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들은 흥태에게 “선생 등을 방문하고 운동을 해주”기를 간청하면서, “소자는 부모를 두고도 고아와 같습니다”라고 하소연한다. 잊고 지냈던 아들에게서 온 편지는,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환기시키면서 흥태를 윤리적 고뇌에 빠뜨린다.

과거 ‘감옥’에 갔다 왔던 사회운동가 흥태는 책임지지 못하고 방치했던 아들에 대한 부채의식에 괴로워한다. 생활인이 된 그가 무책임했던 과거와 대면함으로써, 일상인으로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다. 흥태는 가정을 위해 과거의 일을 청산했다. 그런데 영실과 만나기 이전의 가정은 외면하고 있었다. 아들을 ‘고아’로 방치한 흥태의 정신적 충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는 “미친 사람 모양으로” 남대문통, 황금정, 명치정, 본정, 종로를 걷는다. 흥태는 집에 돌아와서는 폼장춤을 추고, 바람벽에 머리를 콕박고 쓰러져서는 “킁킁 소리를 내이며 울기”까지 한다. 이 소설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흥태의 눈물과 회한을 통해 일상인으로서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사적 세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그렸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과거 길을 부정하면서 일상인이 되었기에, 배신(본부인과 아들)과 배신(과거의 사상)을 거쳐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의 ‘폼장춤’은 체제와 일상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한 몸짓의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재서는 김남천의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것은 巨大한 情神運動이 그 불길을 잃은 뒤에 그 재 속에 남아 있는 人間性의 가장 醜惡한 〇物을 끄집어내는 가장 不愉快한 作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作業이 精神的으로 低劣하다는 것이 아니라(作者는 이 작업을 통하여 精神的 高貴를 主張하였다.) 그 作業을 創作하는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만 緊張을 느추어도 自己分裂이 되려는 自我를 모든 文學론으로 結縛을 하여놓고, 陰酸한 廢墟에서 추악하고 不愉快한 人間性을 차고 때리고 찌르고 하는 作業이란 創造와 大端히 먼 일이다.<sup>17)</sup>

최재서의 『춤추는 남편』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관점에서 흥태의 모습을 ‘추악하고 불유쾌’하게 수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흥태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이혼 소송에 임하고, 아들의 편지를 받고는 춤추는 모습과 같은 희화화로 책임을 회피한다. 최재서의 기본적 관점은 “거대한 정신운동이 그 불길을 잃은 뒤”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 가 있다. 소설 서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연속적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재구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인 셈이다. 『춤추는 남편』은 미시적 문제의식에 사로 잡혀 ‘창조적 작업’과는 거리가 먼 소설이 되었다는 것이 최재서의 평가다.

김남천은 ‘고발 정신’을 제시하며, 창작 방법의 질적 전환에 대한 자신의 문학적 입론을 구성했다. 김남천의 고발문학론에 기초해 『춤추는 남편』의 텍스트를 해석해 보면 어떨까? 소설 시간적 서사, 특히 작가의 사상적 측면을 중시하여 ‘연속과 불연속’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 김남천은 리얼리즘의 ‘사회주의’화에서 더 나아가 리얼리즘의 구체적인 형태인 ‘고발문학’으로의 진전을 이야기한다. 김남천은 고발정신을 통해 “공식주의도 정치주의도”, “영웅주의도 관료주의도” 폭로되어야 한다고 했다.<sup>18)</sup> 고

17) 최재서, 『현대소설과 주제』, 앞의 책, 156-157면.

발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김남천은 『춤추는 남편』의 중심인물인 홍태를 비연대기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그렸다. 홍태는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인물이다. 소설의 시간은 “스토리의 사건 성분 event component 의 텍스트 내의 배열”이다.<sup>18)</sup> 작가는 홍태의 시간을 현재에 집중해 그리다가, 이들의 편지를 통해 홍태의 과거가 돌출되도록 했다. 소설 텍스트의 현재적 시간의 지속이, 과거 개입을 통해 급작스럽게 단절된다. 시간의 지속이 단절되자 홍태는 정신적 혼돈에 빠지게 된다. 김남천은 『춤추는 남편』의 홍태를 연속과 불연속의 시간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서사적 시간의 단절이 사상적 시간의 단절로 이어지도록 했다. 최재서는 카프 문학의 이전 세계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정신운동의 불길’이었는데, 카프의 현재 문학은 “陰酸한 廢墟에서 추악하고 不愉快한 人間性”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남천은 『춤추는 남편』을 통해 홍태 세대의 윤리적 모순을 폭로하고 고발했다. 홍태는 영실과 딸 헤라의 미래를 위해 시골 본처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이는 근대 자유 연애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며,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실과 딸 헤라를 위한 선택은 시골 본처의 파괴된 삶과 시골 아들의 불안한 미래라는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 바로 여기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적 근대성이 갖는 모순의 지점이 폭로된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조혼 풍습에 따라 결혼한 후,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근대인으로서 각성하면서 그들은 자유연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직접 실천했다. 자유연애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를 위한 전위적 선택였으며, 해방사상의 구체적 효과였다. 하지만, 버림받은 구시대 여성의 삶은, 버림받은 식민지 조선의 형상과 겹쳐진다. 근대적 세계가 ‘지금 여기의 세계’라면, ‘그때 저기의 세계’로서의 식민지 조선은 ‘버려진 존재’로서 윤리적 고발의 대상이 된다. 김남천은 버

18) 김남천, 『고발의 정신과 작가-신창작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⑤』, 앞의 글, 5면.

19) 리몬 케년,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81면.

림받은 세계에 대한 고발을 흥태라는 인물로 형상화해 제시했다. 이는 근대적 소시민의 삶이 식민지 현실과 직면했을 때, 윤리적으로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전 세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윤리적으로 모순된 삶에 대한 '준엄한 고발'이기도 하다. 김남천은 『고발정신과 작가』에서 “지식계급도 사회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시민도 지주도 소작인도 그리고 그들이 싸고도는 모든 생활과 갈등과 도덕과 세계관이 날카롭게 추궁되어 준엄하게 고발되어야 할 것”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김남천의 문학적 도전의식 속에서 그려진 흥태의 모습은 최재서의 주장처럼 추악하고, 불유쾌하고, 저열한 인간의 형상화이다.

김남천은 최재서의 주장처럼 '감옥을 갔다온 사회운동가'의 '후일담'을 그렸지만, 그 사회운동가의 시간을 비연대기적 단절 속에 배치시킴으로써 고발의 효과를 노렸다. 김남천은 흥태의 이기적 선택과 자기 합리화를 현재의 시간 속에 배치시킴으로써, 과거와의 비연대기적 시간 서사가 되도록 했다. 이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흥태의 성찰적 태도가 제거된 속물적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과 같다. 최재서는 속물적 인물 자체에 주목해 '추악하고 불유쾌한 인간성'이라고 했지만, 김남천은 속물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가는 인간상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근대 계몽주의 지식계급은 '이념과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였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지식계급은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사적 세계를 구성하려 했다. 근대 지식계급이 옹호한 사적 세계는 체제 내에서만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 계몽주의 지식계급은 사적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기적 선택을 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 3. 우회적 글쓰기와 내부망명으로서의 진지전

정근식은 1926년 4월에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로 구성되

는 경무국 4과 체제가 경무과 도서과, 보안과, 위생과로 구성되는 체제로 바뀌면서 독립적인 행정 단위가 되었다고 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전시체제가 형성되면서 경무국에는 1939년 방호과, 1940년 경계경찰과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1943년 경무국의 과 구분이 폐지”되었다고 했다.<sup>20)</sup> 일제 강점기 검열제도는 지배체제를 전일화시키고, 대항 이데올로기를 억압하며 작동했다. 1930년대 후반 전시동원체제에 이르러서는 ‘제국과 식민’의 위계 유지가 견고해지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화됐다.

검열을 의식하게 되면 작가는 ‘허용된 글쓰기’와 ‘쓰려고 하는 의지’ 사이의 긴장을 고려하게 된다. 검열은 자유를 열망하는 작가에게는 폭력적 억압체제이지만,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작가는 ‘허용된 글쓰기’와 ‘쓰려고 하는 글쓰기’ 사이의 공통영역을 탐색한다. 한만수는 이를 ‘요령있는 글쓰기’, ‘검열우회’라고 했다. 한만수는 검열우회를 1) 금지어 바뀌쓰기, 2) ‘블랙리스트’와 이름 감추기, 3) 나눠쓰기, 4) 남의 말 빌리기로 유형화했다.<sup>21)</sup> 검열의 우회는 일제강점기 검열에 대응하는 작가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1930년대 후반 제2차 카프 사건으로 검거되어 풀려난 작가 중 일부는 ‘검열우회’를 절박한 문제로 바라보았다.

이기영은 제2차 카프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석방되었다. 그는 1936년 2월 9일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의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고, 석방과 동시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라 보호사의 감시체계 안에 들어가야 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는 글쓰기나 타인과의 만남, 이동 등은 근신해야 하는 처지였다. 전주 감옥 출옥 이후 이기영은 보호관찰과 검열을 견디기 위해 “위장협력의 글쓰기”<sup>22)</sup>를 했다.

이기영의 소설 『수석(燧石, 부싷돌)』<sup>23)</sup>은 검열을 의식한 ‘우회의 글쓰

20)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18면.

21) 한만수, 『허용된 불은 -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301-321면.

22) 김홍식, 앞의 책, 364면.

기의 사례다. 이기영은 화자인 '나'가 “새끼에 매달린 돌맹이 격으로” 현실의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그렸다. 이기영은 소설을 통해 제한된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기모색’을 했다. ‘소설 속 화자인 ‘나’는 “집에 돌아와서, 이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뒤부터 신병은 차차 쾌차해졌다”라고만 표현되었다. 이는 감옥에서 나온 후,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기영의 처지에서 ‘감옥’은 소설 속 금기어일 수 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집에 돌아와서”와 같은 표현으로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 나간다. ‘나의 취직을 주선해준 박군’에 대해서도 “나보다 먼저나온 박군은 금융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은 알토란처럼 오붓하게 잘산다”라고만 했다. 독자의 입장에서 추론해 보면, ‘나’와 ‘박군’은 같은 사건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먼저 출옥한 ‘박군’이 나의 일상생활의 안착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출옥한 ‘나’에게 ‘금융회사 수금원 생활’을 주선해 준 이가 바로 박군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의 취업을 알선하고,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준다. 하지만, ‘나’는 박군의 처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남까지 끌고 들어가는 심사”와 같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수금원이라는 일이 고약하다. 모종의 사회운동을 했던 ‘나’로서는 고리대금업의 하수인이 되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모순적이기만 하다. 그런데도 ‘나’는 두달 동안이나 이 직업을 내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다.

결국 나는 황금의 마술(魔術)에 번롱(翻弄)을 당하는 셈이다. 하긴 그 게 어디 하나 뿐이라. 온세상사람이 모두 다 그렇다하겠지만. 한해도 황금의 신(神)이 씨여서 나를 별안간 떠받들게 되었다. 나도 황금앞에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인공이 떠러진 것 아닌가? 나는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간 자신을 다시금 슬퍼하였다.<sup>24)</sup>

23) 이기영, 『燧石(부싷돌)』, 〈조광〉, 조선일보 출판부, 1939.3.

현실의 논리에 포박당한 자신에 대해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도 변하기 쉬운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하지만, 답은 멀리에 있지 않았다. 생활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금융회사 내에서 동료와 갈등이 발생하고, 언쟁 끝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기로 결심한다. ‘나’는 직장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자 “이십리 상거되는 역말로 안군”을 찾아가 “촌선생”이 될 결심을 밝힌다. ‘나’는 “도회에서 그전처럼 뽀내보라는 생각”을 접고, “성냥대신 부싷돌을 치듯이 교육자의 정열!”로 촌선생으로의 삶을 탐색한다. 이 소설의 마무리 부분은 ‘나와 금융회사 동료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아내가 그 ‘동료의 부인’을 찾아가지만, ‘나’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촌선생으로서 ‘부싷돌’(燧石)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온다.

『수석』의 깊은 내막은 다른 결의 읽기를 통해 재구성할 수 있다. ‘나’와 ‘박군’은 대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가족을 위한 취업과 돈벌이로 괴로워하는 고뇌하는 인간이라면, ‘박군’은 삶의 방향을 바꿔 성공적인 일상인이 된 인물이다. 박군이야말로 ‘전향을 한 가장인 셈이다.

이 소설의 갈등은 ‘나’와 ‘박군’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내’의 관계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내’는 ‘내’가 ‘박군’처럼 성공적으로 일상에 안착하기를 원한다. 아내의 욕망은, 억압기구의 보호 관찰 보다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다. 아내로 표상되는 세계는 근대 사회의 일상이 규율하는 식민지적 감옥체계와도 연결된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재판관들이 유죄판결을 위한 유죄판결의 필요성을 점점 더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재판 활동은 규범화 권력”의 확산을 돕는다고 했다. 규범화 권력의 작동은 일상의 욕망이 재배치되는 방식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규범체계가 정상성을 구성한다. 정상성은 “교수-재판관,

24) 위의 책, 283면.

의사-재판관, 교육자-재판관, '사회사업가-재판관'이라는 근대사회를 만든다. 아내의 욕망은 정상성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나의 선택은 규범화 권력에 의해 "편입·배분·감시·관찰체계" 속에서 이뤄진다.<sup>25)</sup> 그렇기에 '나가 성냥의 길, 도회의 삶을 포기하고 촌선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규범화 권력의 바깥으로 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기영이 처해있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서사적 진행은 비록 문학적 상상의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비연속적 일상과는 다른 '연속적 사상 통합의 세계'로 향하는 결단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이기영의 선택은 '내부망명'<sup>26)</sup>, '사상의 진지전'이다. 이기영은 출옥 후 처음으로 발표한 수필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자신의 상태와 소회를 표현했다. 그는 “겨울에 가쳐있든 내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벌써 언제부터이었던가? (중략) 봄은 왜 이렇게도 오기가 어려운가? 참으로 봄은 언제나 오라는가?” 라고 했다. 1936년 4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글에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봄타령'을 하고 있다. 계절은 '봄'이건만 그는 “氷雪로 武裝한 겨울”을 느끼고 있다. 글에서 '봄'은 '겨울'에 대비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비약을 감수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담겨 있는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나, 그 마음에는 “희망”, “동경”, “기대”, “포부”, “이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추궁하듯이 “오직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가련한 동물인지 모를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었다.<sup>27)</sup> 이기영은 작가로서 맞이한 엄혹한 현

25) 미셸 푸코, 오성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437면.

26) '내부망명'은 김홍식이 이태준의 비협력적 태도를 의미화하면서 채택한 용어다. 김홍식은 이태준에 대해 “이중독해의 글쓰기는 고도로 계산된 비협력태도라는 점에서 내부망명의 진정성을 머금은 것”이라고 했다. (김홍식, 『일제 말기 '내부망명'문학과 봉황각좌담회의 담론』, 『한국근대문학과 사상의 논리』, 역락, 2019, 303면.

27) 이기영, 『고난의 배후서 - 봄을 기다리는 마음』, (조선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사, 1936.4.12., 3면.

실을 '겨울'과 '봄에 대한 기대'로 표현했다. 그의 글은 겨울을 건디는 마음의 표현이며, 외로움을 감내하는 인고의 기간을 예비하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에 이기영은 소설 「수석」과 수필 「고난의 배후서 -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검열과 싸우는 우회의 글쓰기인 '사상의 진지전'을 수행해 나갔다.

#### 4. 사적 세계와 내적 일관성의 대결

한설야는 제2차 카프사건으로 1934년 6월 21일 체포되어 1935년 12월 9일 풀려났다. 1년 반동안 감옥 생활을 한 이후 한설야는 함흥의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하며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료했다. 그가 출옥 이후 처음 발표한 글은 「머리에서 쓴 일기(日記) - 그 중 멧토막」이다. 이 글은 〈조선일보〉 1936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연재되었다. 한설야는 「머리에 쓴 日記 - 그 중 멧토막」에서 감옥에서 맞는 가을의 풍경을 제시한 후 「E군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한다. E군이 나간 후, 한설야는 '고적(孤寂)'을 느낀다고 하면서 "두 개의 조고만 비누썬과 H군이 보내준 한 장의 葉書가 지금의 유일한 동무다"라고 말한다.<sup>28)</sup> 이 글에 의하면 카프 신건설사 사건으로 38명이 연행되었고, 8~9명만이 감옥에 남겨졌다고 한다. 동료들이 출옥한 이후에도 감옥에 남아 한설야는 조선문학과 창작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친다. 한설야는 "지금 다시 리알리즘 文學에 있어서 眞實한 『人間』 - 잇는 그대로의 人間을 배운다. 이것은 나의 文學修業上의 또는 人間修業上의 커다란 所得이라고 할 것"<sup>29)</sup>이라고 했다. 한설

28) 한설야, 「머리에 쓴 日記 - 그중의 멧토막①」,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36년 1월 24일자, 5면.

29) 한설야, 「머리에 쓴 日記 - 그중의 멧토막③」,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36년 1월 26일자, 5면.

야는 이론을 앞세운 '비판정신'보다는 창작자로서의 '창조정신'을 중시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인간'의 발견을 작품 속에서 추구한다는 다짐을 한다.

한설야는 '진실한 인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그려내기 위해 『이녕』<sup>30)</sup>을 발표했다. 한설야는 『이녕』에서 '생활'과 '문학(혹은 사상)'을 대비시키며 화자의 내적 긴장을 그려냈다.

소설 속 인물인 민우는 이른 바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청년회패'와 어울려다니면서 "직업 잡고 돈버릴 하라면 무슨 파문(破門)이나 당한 듯이 꺼리"면서 어울려 다녔었다. 그는 신문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지만, 4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출옥한 후에는 집에 머물며 책 보는 것이 일상이다. 간혹 신문사 지국에 가서 며칠간의 기사를 한꺼번에 읽기도 한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민우가 뒷방에서 자고 일어났다, 정주(부엌)에서 아내를 포함한 네 명의 여인이 스스럼없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민우의 아내는 주로 이야기를 듣는 축이고, 수득이 어머니가 나서서 남편 자랑과 자기 가족 자랑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아내들은 한 때 '청년회패'로 어울렸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문과 사실을 넘나들며 이야기한다. 연극을 하던 김동일은 자동차부에서 근무하고, 청년회패중에서 '연설도 하고 제일 똑똑하다던' 박의선은 도청 사회과에 취직해 근무한다. 모두들 생활인이 되어 수리조합, 부청토목계 측량반, 어느 회사의 고원 등으로 '돈버느라고 앞전해졌다'고 아내들이 평가한다. 소설의 전반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이야기, 혹은 내밀한 이야기를 엿듣는 형식으로 전개됨으로써, 시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네 명의 여성화자가 등장해 현재의 시점에서 남편들의 과거나 한 때 사회운동에 몸담았던 인물들의 삶을 재구성하여 들려준다는 점이다.

30) 한설야, 『이녕』, 〈문장〉 제1권 제4호, 문장사, 1939.5.

다. 작가는 시간의 구성적 배열을 통해 개별 사건들을 의미있는 전체로 구성한다. 폴 리콥르는 ‘구성적 배열’이 줄거리의 ‘핵심’ 또는 ‘주제’와 연결된다고 했다.<sup>31)</sup> 네명의 여성은 사회운동을 했던 이들이 생활인으로 변했다고 소문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작가는 여기서 서사를 더 끌고 나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제’를 구성해낸다.

소설 속 반전은 네 여성의 이야기 이후에 발생한다. 작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속으로 논평하며 불편해 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수득이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은 실상은 “중학도 변변히 마치지 못한 촌내기 꼴생원”이고, 덕근이 아내가 남편의 오입질 때문에 속을 끓인다고 했는데, 덕근이는 “의외로 씩씩하고 든든하고 물리가 탁티운 사나히”이다. 이러한 이면의 서사를 통해 한살아는 생활에 갇혀 보지 못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진실은 생활에 충실한 이들이, 오직 생활만을 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들로 인해 “사막과 같이 텅부인 공허감(空虛感)”느끼고, “진창으로 반죽 해주라는 무서운 우치(愚痴)의 세계”도 발견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이녕(泥濘)’도 여인들이 보여주는 ‘진창으로 반죽한 것과 같은 세계에서 따온 것이다.

『이녕』의 중반부 사건은 민우와 아내가 성격과 가치 지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민우가 ‘그리루 가 있는 사년동안’에 아내는 아들 넷과 딸 하나를 키우느라 고생했다. 아내는 이제 민우가 ‘되지두 않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갈 연구’를 하기를 바란다. 심지어 민우에게 글 쓰는 것까지 그만 두라고 요구한다. 민우가 보기에 여인들이 ‘이녕(泥濘)’으로 보인다면, 아내가 보기에 민우의 성격도 ‘오랜 늪물처럼’ 변화가 없어 답답할 뿐이다.

민우는 다섯 아이들이 ‘성격이 약한 것’이 불만이다. 더 모질고, 발악하듯 강했으면 하지만, 민우 자신의 성격이 약하니 아이들도 약하다는 생각

31) 폴 리콥르, 김한식·이경래 옮김, 앞의 책, 153면.

을 한다. 민우가 못견뎌하는 것은 아이들의 울음 소리다. 민우의 관점에서서는 약한 자들이 우는 것이기에, 우는 것만은 신경질적으로 못하게 한다. 막내 아이가 밖에서 동네 다른 아이와 싸우다 맞고 와서 울면, '우는 대신 악을 좀더 쓰'라고 이야기한다. 민우의 내면이 드러나는 다음 인용문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착하기만하면 그만이지 누가 뭘 어쩐단말요. 남한테 못할일 안하니깐 아무 무서운거 없습디다.』

『착하고 악하고간에 제하는 일에는 그저 강해야하는거야. 극성스리, 악마같이 강해야 하는거란말야. 엉거주춤한 놈은 한평생 남에게 놀리다가 우물쭈물 죽어버리는 법이니 그래 제새끼가 그꼴을 해야 올단말인가. 그리게 범을 낳아. 양을 낳드라도 범으로 길르란말야 범으로』

그전에는 이런 씹이 며칠걸러씩 있었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민우의 이 씹은 그가 약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삼십년동안 세상에서 받은 가지가지 체험에서 울어나온 울분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목도래를 친 강아지를, 목장에 가친 양의 새끼를, 암만친들 무슨 소용이라, 그때위 약한놈의 새끼들, 얼간이 막난이들, 꺾하면 울구 약차하면 물러서구, 남의침 부러할줄이나 알구, 기견해야 그 잘난 에미 역성이나 들구 에미 아니면 못사는 줄알구- 32)

민우는 극성스럽게, 악마처럼 '강해야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스스로가 약한 성격으로 삼십년을 살아왔음을 반성한다. 그러면서 아이들만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양을 낳드라도 범으로" 키워야 한다고 다그친다. 자신의 처지를 아이들에게 빚댄 것이고, 울분이 담긴 말이기도 하다. "목도래를 친 강아지" "목장에 가친 양의 새끼"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목줄

32) 한설야, 『이녕』, 앞의 책, 20-21면.

에 감긴 강아지나 목장에 갇힌 양은 자유가 속박 당한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소 위태로운 표현이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검열’을 고려한 고도의 글쓰기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한만수는 검열우회의 사례연구에서 ‘이중의 환유’를 제시했다.<sup>33)</sup> 한만수는 그 적절한 예로, 금지어와 권장어를 결합해 ‘일본내지’라는 대체어를 사용한 이태준의 글쓰기를 제시했다. 한설야는 약한 성격의 아이를 질타하면서, “목도래를 친 강아지”와 “목장에 가친 양의 새끼”라고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민우가 ‘보호감찰소’에 가야하는 것과 연결되어, 독자에게는 억압적 현실이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녕』에는 드물게 일제강점기 사상범에 대한 보호 관찰 실태가 비교적 직접적이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보호관찰의 실태는 네 여인의 대화에서 만수네 어머니가 “그전 같으면 거게 한번다녀오기만하면 아무데도 명함을 낼 엄두를 못하드니만서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외려 더 잘 씨이는 구려글세”라는 대목이 나온다. 요주의 인물이었던 박의선은 “재판소 누구라나 한 사람의 소개”로 도청 사회과에 취직한다. 그래서 민우의 아내도 민우가 ‘보호감찰소’를 통해 박의선 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민호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 관찰 대상자는 2년동안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직업소개, 기술의 재교육, 취학, 복교, 결혼알선, 가정과의 융화 도모 등이었다.<sup>34)</sup> 민우도 “관찰소로 전촌씨”를 만나러 가서 직업 교섭을 부탁한다. 직업소개는 보호관찰소의 주요 업무였다. 이미 도청 사회과에 취업이 된 박의선이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것으

33) 한만수, 앞의 책, 381면.

34) “보호관찰의 내용은 주로 사상지도와 생활 확립을 위한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생활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소개, 기술의 재교육, 就學, 復校, 결혼 알선, 가정과의 융화 도모 등이었다.”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학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9, 225면.)

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기적인 면담 관리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민우는 박의선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면의 서사를 소설에서 제시한다. 첫째는 박의선이 젊은 시절 갈등하며 “싸우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했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소 방문 이후 민우가 “산에 올라가 움푹하고 향양한 남벽바위에 기대어 가지고간 책을 한참” 읽는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는 작가도 민우가 박의선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리라는 암시하고, 둘째는 표면적으로 검찰소의 감시에 순응하면서도 숨어서는 사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관찰소는 민우가 출옥을 했음에도 여전히 감시당하고 간헐적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우는 책 읽는 행위로 내적 저항을 지속한다.

한설야의 검열우회의 글쓰기는 「이녕」 소설의 결말에서 빛을 발한다. 민우와 아내는 긴장상태를 지속하며, 좀처럼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한밤중에 족제비가 침입해 닭을 물고가는 것을 아내가 발견한다. 민우와 아내는 재빠르게 족제비를 공격하여 닭을 구해내고 안도한다. 민우와 아내는 족제비를 죽이지 못한 것을 분해하고, 공동의 적을 향해 표출된 공격성 때문에 유쾌한 기분을 회복한다. 이 결말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최재서는 「이녕」의 결말이 “가정적 위기를 당하여 부부는 전투상태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협동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대단히 동화적”이라고 했다. 최재서는 “결말 이 소설의 모랄은?”이라고 반문한다.<sup>35)</sup> 한설야가 작품 속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다를 수 있다. 작가는 「이녕」에서 강함, 분노, 악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상태를 속박되어 있는 강아지와 양에 비유하기도 했다.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 족제비는 외부의 침입자이기에 분노해야 할 대상이다. 민우와 아내는 분노의 대상을 발견하고 공격

35) 최재서, 「현대소설과 주제」, 앞의 책, 155면.

성을 발휘하며, 더 나아가 덧을 놓아서 기어이 족제비를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그런 의미에서 최재서가 질문한 이 작품의 모달은 분노의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저항의 정신을 맥락적 질서로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폴 리콰르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에서 ‘상상적인 허구’와 ‘살아있는 경험의 불안한 혼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언급은 ‘사후에 회고적인 삶의 조직’에 관한 것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설야의 『이닝』을 검열을 고려한 읽기로 재구성하는데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삶의 이야기적 통일성 개념에 대해 말하면, 상상적인 허구와 살아 있는 경험의 불안한 혼합을 그 속에서 보아야 한다. 현실적인 삶의 그 탈주적 성격 때문에 우리는 사후에 회고적으로 이 삶을 조직하기 위해 픽션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픽션이나 이야기에서 빌려온 즐거리화의 모든 모습을 수정할 수 있고 일시적이라고 간주할 각오를 하고서 말이다. (중략) 사람들은 문학적 이야기가 회고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과거 부분에 대한 명상만을 알려줄 수 있다고 쉽게 믿는다. 그런데 문학적 이야기는 매우 분명한 하나의 이야기에만 회고적이다. 그러니까 오직 화자의 눈에만 이야기된 사실들은 예전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sup>36)</sup>

‘살아 있는 경험’과 ‘상상적 허구’는 시간의 재구성을 통해 픽션으로 구현된다. 작가는 픽션을 통해 ‘상상적 구현물’로서 전체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만든다. 시간 또한 재구성 작업이 가능하다. 물질적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非可逆性)을 작가는 상상력으로 시간을 재구성해 그려낼 수 있다. 재구성된 시간, 재배열된 시간을 통해 소설의 사상과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닝』의 경우, 한 때 사회운동을 했다가 지금은 생활인으로 돌아선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문형식으로 제시한

36) 폴 리콰르, 김용권 옮김,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219-220면.

다. 작가는 이러한 소문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왜곡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서사의 흐름에 개입한다. 동시대 현실과 과거 사회운동을 했던 인물들의 응축된 시간이 작가의 서사적 의도에 따라 재배열되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보호관찰제도'라는 일제 강점기 사상의 억압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인의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억압적 현실을 그려냈다. 한설야는 시간을 재배열함으로써, 갇힌 상태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적의가 제거된 식민지적 상황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촉구하는 주제를 구현했다.<sup>37)</sup> 한설야는 민우를 한때 사회운동을 했고, 과거의 경험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내적 서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인물로 형상화했다. 한설야는 사상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소설 서사의 주제적 일관성을 구현했다. 최재서의 해설처럼 단지 현재의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부분에만 주목하면, 소설의 서사가 품고 있는 현실의 억압에 대한 검열우회적 저항이라는 '주제와 사상'을 놓치게 된다.

## 5. '후일담 문학'과 소설의 시간성

최재서가 『현대소설과 주제』를 통해 1930년대 후반의 소설문학을 '후일담문학'이라고 논의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논자는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가 발표한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최재서의 논의를 비판했

37) 한설야는 자신의 문학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문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디딤직한 동반자는 역사요 현실이다. 역사와 현실은 진실로 생을 구하고 활로를 찾는 사람에게 비록 일시의 불운과 통고는 줄지언정 영원한 사멸은 주지 않는다. (중략) 우리는 결코 무모히 이 절박한 위기하에서 놀라운 대작을 공상하는 자가 아니다. 심리소설을 써도 무방하다. 신변소설을 써도 조타. 다만 요는 상술한바와가티 그 심리로 하여금 『주체적 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인 역사와 현실에 즉 객관적 현실에 접근하여가지 안흐면 안되리라고 나는 생각할 뿐이다."(한설야, 기교주의의 검토 - 문단의 동향과 관련 시키어, 〈조선일보〉 1937년 2월 9일자, 5면.)

다. 최재서의 '후일담문학'은 검열을 고려한 '우회적 글쓰기'와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후일담문학'이라는 용어에는 '전향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소설에 나타나는 시간의 재구성 양상과 사상의 일관성 여부를 연결해 접근했을 때, '후일담문학'은 1930년대 후반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문학을 가치평가한 것이다.

'전향이란 다른 곳을 향함이기에, 하나의 사상에서 다른 사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억압에 굴복하여, 생활인이 되는 것만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1930년대 후반은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었고, 글쓰기에 대한 검열도 엄혹했던 시기였다. 사상범에서 생활인으로서의 변화도 자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적 상태를 우회하기 위한 '강요의 수락'이었다. '후일담 문학'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후일담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문학적 선택, 혹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사후적 의미한다. 식민지 지식인 작가가 온전한 의미의 내적 전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오로지 자기확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서사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 이뤄진 저항적 글쓰기의 한 가능성을 김남천의 '고발문학과 이기영의 '진지전의 글쓰기', 그리고 한설야의 '검열우회적 글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재서의 『현대소설과 주제』와 대비되는 글로 임화의 『최근소설의 주인공』<sup>38)</sup>을 주목하게 된다. 임화의 이 글은 최재서의 『현대소설과 주제』에 대한 반론으로 후반부가 채워져 있다. 임화의 『최근 소설의 주인공』이 최재서의 글에 대한 반론이라는 것은 두 글이 동일한 매체(문장)에 게재되었고,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화의 글은 끝부분에 '7월 26일' 썼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문학사

38) 임화, 『최근소설의 주인공』. 〈문장〉 제1권 제8호, 문장사, 1939.9.

에서는 임화의 『최근소설의 주인공』은 '전향소설'이 처음 등장하는 텍스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재서가 『현대소설과 주제』에서 전향물, 전향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임화는 최재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제시하면서 '전향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임화의 『최근소설의 주인공』 후반부는 최재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최재서 글에 대한 비판문이다. 임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항용 轉向小說이라고 하는데서 볼수 있는 것은 周知하듯 現在의 人物에겐 지나치게 華麗한 過去를 가진 人物들의 苦惱로 一貫한 文學이었다.

우리 文壇에서 이 主題를 料理한 方法은 대략 二種인데 하나는 民村의 『寂寞』이나 『追悼會』 같은 小說에서 볼 수 있는 變遷된 世態에서 느끼는 寂寞感和 良心의 孤高함으로 그린 世界요 둘째는 同僚 가운데서 或은 自己 가운데서 새 時代가 가져오는 毒素을 除去하자는 防禦의 世界다. 이것이 南天의 告發의 文學이다. 短篇集 『少年行』 가운데 收錄된 全作品이 거위 이 主題를 爲하여 作者가 苦鬪한 것이다. 두가지 問題 세우는 方法을 心理化하면 하나는 靜寂의 世界요 하나는 狂亂의 世界다. 勿論 靜寂이란 自己에 對한 過信에서 오는 것이요, 狂亂이란 自己에 對한 不信에서 오는 것이다.<sup>39)</sup>

임화의 1930년대 후반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해석적 대응은 최재서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기영과 김남천으로 대표되는 서사적 양식이 인물 성격 형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최재서가 '현대소설의 주제의 빈곤'을 다룬 방식과 상이하다. 임화는 "인물과 환경이 조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칙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인공을 압박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진술은 최재서의 이기영, 김남천 비판에 대한 임화의 반론이다. '조선사

39) 위의 책, 157면.

상범보호관찰령'이나 '검열'이라는 압도적 상황에서 우회적 글쓰기가 이뤄질 경우, 주제의 빈곤으로 비판할 수 있다. 임화는 최재서의 비판에 대응해 이기영은 "변천된 세대에서 느끼는 적막감과 양심의 고고함"을 그렸고, 김남천은 "동료 가운데 혹은 자기 가운데서 새 시대가 가져오는 독소를 제거하지는 방어의 세계"로 나아갔다고 했다. 한설야의 『이녕』에 대해 임화는 "鬱鬱한 기분 푸를 곳 없는 정열 오래 隱匿되었던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평했다. 임화는 세 작가의 작품이 "과거를 가진 인간의 현대적 운명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소설서사와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소설 속 현재 시간을 의도적으로 분절하는 것과 같다. 소설의 시간은 사상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소설 서사 속에 구현된 사상이 분절되어 있거나, 연대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작가의 글쓰기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김남천은 의도적 분절을 통해 고발의 정신을 구현하려 했고, 이기영은 내적 지속을 탐색했으며, 한설야는 서사의 분절은 있으나 반성적 자아가 강고하게 사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글쓰기를 했다.

임화는 최재서가 사용한 '후일담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전향소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용법도 "지나치게 화려한 과거를 가진 인물의 고뇌" 정도로 제한했다. 최재서가 '메인 스토리가 끝나고 에피소드나 서브 스토리를 덧붙이는 이야기'라고 했던 것에 비해, 임화는 '양심'과 '방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면화했다.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자면, 이기영의 『수석』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과신 속에서 '정적'의 세계로 접어든 것이고, 김남천의 『춤추는 남편』은 자기 불신으로 인해 '광란적으로 자기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설야의 『이녕』은 외적 서사와 내적 서사를 분절함으로써 사상의 일관성을 고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 작가는 사건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적 고뇌에 대한 세 가지 대응 방식을 펼쳐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남천은 『춤추는 남편』에서 소설서사의 불연속성이 아닌 '사상의 불연속'을 다뤘다. 흥태가 선택한 일상의 추구를 고발하는 서사를 전개해나갔다. 이기영도 『수석』에서 감옥에서 출옥한 이후의 삶을 '고리대금업'과 연결시키는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했다. 한설야의 『이녕』에 드러나는 서사는 사상의 분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적 서사는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삶이 직면한 상황에 의한 '사상의 불연속'을, 문학적 상상을 통해 '사상 통합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구상과 연결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남천과 이기영, 한설야는 1930년대의 현실을 '사상의 진지전'을 통해 견뎌내는 문학적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서의 '후일담 문학'은 리얼리즘 문학 이후의 문학적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 1980년대 문학과 1990년대 문학을 대비하면서, 1990년대 문학은 '후일담 문학'으로 지칭되곤 한다. 운동권 문학 이후의 문학, 리얼리즘 이후의 문학, 거대 서사에 대비되는 미시 서사가 후일담문학의 특징이다. 하지만, 최재서가 『현대소설과 주제』에서 '후일담 문학'을 규정하는 방식은 다른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과 카프 해산, 그리고 검열과 문학 지형의 변화 속에서 카프 출신 작가들은 허용된 자유를 활용하는 글쓰기 방식을 선택했다. 김남천의 고발문학과 이기영의 검열의 우회는 억압적 시대 상황을 인한 차선적 글쓰기였다. 김남천과 이기영, 한설야의 1930년대 후반 소설은 '후일담 문학'이기 보다는 '사상의 진지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세 작가는 "벌어온 서양사상을 단지 관념적으로 수용"했던 것에서 "현실의 견고함"에 부딪쳐 전향했다<sup>40)</sup>고 하기 보다는, 생활과 이념 사이의 간극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0)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사상사』, 한길사, 1990, 306면.

| 참고문헌 |

- 『박완식은 공소, 칠일은 검사공소, 신건설사건판결후보, 12인은 조야출감』, 〈조선일보〉 1935년 12월 17일, 조선일보사
- 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 김남천, 『고발의 정신과 작가·신창작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⑤』, 〈조선일보〉 1937년 6월 5일자
- 김남천, 『춤추는 남편』, 〈여성〉 제2권 제10호,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7.10
-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사상사』, 한길사, 1990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김홍식, 『일제 말기 '내부명명문학'과 봉황각좌담회의 담론』, 『한국근대문학사상의 논리』, 역락, 2019
- 김홍식, 『작가 이기영, 그 치열한 삶과 문학적 진실의 수준』, 예옥, 2020
- 리몬 케년,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역락, 2017
- 서항석 외, 『명일의 조선문학 - 장래할 사조와 경향 : 문단 중진 14씨에게 재검토된 리얼리즘과 휴머니즘』, 〈동아일보〉 1938년 1월 1일자·3일자, 동아일보사.
- 이기영, 『고난의 배후서 - 봄을 기다리는 마음』, 〈조선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사, 1936.4.12.
- 이기영, 『燧石(부식돌)』, 〈조광〉, 조선일보 출판부, 1939.3
- 임화, 『최근소설의 주인공』. 〈문장〉 제1권 제8호, 문장사, 1939.9.
- 최재서, 『비평과 과학』,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 최재서, 『현대소설과 주제』. 〈문장〉 제1권 제6호, 문장사, 1939.7
- 폴 리코르,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I』, 문학과지성사, 2008
- 한만수, 『허용된 불온 -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 한설야, 『이녕』, 〈문장〉 제1권 제4호, 문장사, 1939.5.
- 한설야, 기교주의의 검토 - 문단의 동향과 관련시키어, 〈조선일보〉 1937년 2월 9일자
-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학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9
- 한설야, 『머리쓰는 日記 - 그중의 멧토막①~③』,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36년 1월 24~26일자

<Abstract>

## A Study on the 'Later-Talked' Novels and Temporal Recomposition Pattern of Narrativ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

Oh, Chang-Eun

This paper focuses on the literature that Choi Jae-seo defined as 'later-talked' novels of writers from KAPF in the second half of 1930s. The article is Choi Jae-seo's 'Modern novels and topics' (<Munjang> Vol. 1, No. 6, July 19397). Choi Jae-seo described 'later-talked' as a novel that deviated from the central theme by dealing with episodes. For a critical approach to the discussion of Choi Jae-seo, we approached 'later-talked' by connecting it to the problem of time.

The name 'Later-talked' is related to the posterior reconstruction of time. Choi Jae-seo's discussion of 'later-talked' emphasizes the 'non-chronological' or 'disconnected plot',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modern novels. Choi Jae-seo's 'later-talked' emphasizes the negative aspect that the overwhelming situation of the Sino-Japanese War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impacted the narrative of novels.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the novels of writers from KAPF chose 'the Advance War of Thought that endured the times through the temporal reconstruction of the narrative. The texts for our analysis are Kim Nam-cheon's 'Dancing husband' (1937), Lee Gi-yeong's 'Flint' (1939), and Han Seol-ya's 'Muddy Ground' (1939). The three novels tried to endure the difficulties of the times of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by embodying the writers' ideological continuity through the time rearrangement of the narrative. Kim Nam-cheon critically reconstructed the temporal break of the narrative through the theory of accusatory literature. Lee Gi-yeong tried to secure the inner connection of his thoughts through a method of bypassing censorship. Han Seol-ya showed a pattern of reinforcing the inner continuation of the ideology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narratives in a more active way. Kim Nam-cheon, Lee Gi-yeong and Han Seol-ya were engaged in the “Advance War of Thought”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through temporal reconstruction of novel narratives.

We revealed that the article 『The protagonist of a recent novel』 of Im Hwa ((<Munjang> Volume 1, No. 8, September 1939) was also a discussion criticizing Choi Jae-seo's 『Modern novels and topics』. Choi Jae-seo approached 'later-talked' in relation to 'subject', while Im Hwa critically approached the 'ideologically converted novels' in relation to 'characters'. Im Hwa expressed interest in the aspect of a character with a splendid past who is now agonizing. Im Hwa focused on the artist's “inner agony” by presenting the subject of criticism, “personalization of the protagonist”, which contrasts with Choi Jae-seo’s “subject”.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amid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dissolution of KAPF, and a change in the literary landscape due to censorship, writers from KAPF chose to write novels that utilize their allowed freedom to realize their 'will to write'. The novels by Kim Nam-cheon, Lee Gi-yeong, and Han Seol-ya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do not belong to the 'later-talked' category named by Choi Jae-seo, but should be named the 'inside asylum literature that confronts the times through internal writing for the continuation of ideas.

Key words: 'Later-talked' literature, Choi Jae-seo, 『Modern novels and topics』, Im Hwa, 『The protagonist of a recent novel』, ideologically converted literature, ideologically converted novel,

literature in the second half of 1930s, transformational era, Sino-Japanese War, KAPF dissolution, censorship, Kim Nam-cheon, Lee Gi-yeong, Han Seol-ya, 『Dancing husband』, 『Flint』, 『Muddy Ground』

투 고 일 : 2020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